



“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주)한화63시티

대한생명 부산사옥

글 이미숙 KFFPA 계몽홍보팀 과장

KFFPA는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하여 「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패」를 건물 입구에 부착하는 「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2011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주)한화63시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된 대한생명 부산사옥을 방문하여 안창발 소장을 만나 보았다.

▼대한생명 부산사옥 전경



대한민국 No.1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주)한화63시티

63빌딩을 26년간 관리하며 축적한 경험과 기술, 전문화된 인력을 바탕으로 2010년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한 (주)한화63시티는 전국의 대한생명 42개 사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100개 건물을 자산 관리하는 ‘SITE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한화63시티는 전문화된 자산관리, 임대차 서비스, 시설관리 서비스, 건축사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에서 나아가 환경/에너지 서비스, 매입/매각 서비스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조선족아동 초청 한국문화 체험, 영등포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초청·진행하는 서울투어, 영등포 독거노인 가정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안전한 집 가꾸기, 한강정화활동 등 기술력과 비즈니스의 특색을 살린 이색적인 나눔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1인 평균 5종 이상 기술자격증 보유

(주)한화63시티는 ‘개인별 기술력 향상이 회사 발전의 주축이 된다’는 생각 하에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적극 장려하여, 직원 1명당

전기, 소방, 기계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자격증 등 평균 5종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소장들이 분기별로 모여 건물관리에 대한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본사 및 지방 임직원들의 기술포럼으로, 창조적 조직문화 정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 게시판을 활성화시켜 직원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수시로 게시되어 업무에 반영되고 있으며, 맛집 탐방, 봉사활동, 문화 관람 등 직원 간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대한생명 부산사옥

부산시 부전동에 위치한 대한생명 부산사옥은 2001년 3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지상 19층/지하 6층, 대지면적 2,415㎡, 연면적 29,908㎡의 규모이다. 건물 내 입주사, 협력사, 당사 직원들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실제상황을 대비한 분기별·월별 소방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주)한화63시티 안창발 소장 및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안전의식을 갖게 된 건물 입주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물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소방교육 및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조직과 개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획력 있게 업무 임해

대한생명 부산사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창발 소장은 울산사옥을 관리한 17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년 전부터 부산사옥을 관리하고 있다. 울산사옥 관리 당시에도 전국 사업장 중 5년 연속 업무평가 1~2위를 차지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소방방재청장상, 소방서장상 등을 수상하는 등 소방안전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업무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자신 있게 “기획력”이라고 말하는 안 소장. 안 소장은 “같은 소방업무도 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계획 없이 당장 해야 할 일에 급급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개인의 경험과 지식,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문제의식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기획하고 실행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안 소장은 직장생활의 노하우로 조직과 개인의 동반 성

장과 인간관계를 꼽는데, “조직구성원의 모든 업무는 매 순간마다 판단과 결정의 연속이기에 최선과 최상을 지향하는 개인의 습관적 노력들이 자신과 회사를 한 차원 높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의 풍요를 창출하는 기업, 최고의 자산 관리전문기업, 최고의 성과를 고객에게 드리는 기업 (주)한화63시티. (주)한화63시티의 기술력과 도전정신, 활기찬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대한생명 부산사옥은 오늘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



KFPA 고영선 이사장(우)과 한화63시티 안창발 소장(좌)



방재실 내부



소방교육